



남원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삼계탕 나눔 행사

남원소방서(서장 박려규)는 지난 5일 남원여성의용소방대(대장 양미숙)에서 무더위에 고생하는 소방대원들 시기진작을 위해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은 말복을 맞아 찜통 더위속에 코로나19 지원 등 각종 출동과 훈련으로 체력이 소진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삼, 대추 등 각종 재료가 들어간 삼계탕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특히 소방서 근무 특성상 3교대인 점을 고려해 3개 팀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5~6일 접심·저녁에 걸쳐 130여명의 전 대원에게 삼계탕을 제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소방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도자 소방안전 교육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 5일 진안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였으�다.

이번 교육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을 대상으로 화재시 초기 대응 방법과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들, 화재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졌다.

특히 집, 상가건물, 도로, 고속도로, 둘, 산, 등 재난위치에 따라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119신고 앱을 통해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진안=우태민 기자

순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센터 운영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구매?설치를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일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감지기는 방·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순창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상담 청구를 일원화하여 판매업체 안내 및 공동구매 등 주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용담호가 살아야 진안군이 산다"

진안군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 등 3개 민간단체 집중정화활동

진안군 용담호수질개선 협의회(회장 김정길)는 6월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도 전북도민의 생명수이자 전북발전의 젖줄인 용담호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용담호수질개선 주민협의회 등 3개 민간단체 임원 및 회원 60여명은 용담호 유입 하천인 진안천에서 집중호우 이후 발생한 폐비닐, 생수병, 스치로폼 등 쓰레기 수거에 구슬땀을 흘렸다.

회원들은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장마와 폭우로 하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생활쓰레기 등 부유물질 2톤 정도를 수거했다.

진안천은 용담호 상류지역으로 진안군민의 40%가 거주하고 있으며,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



역이다.

용담호수질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은 용담호 1급수 수질을 위해 적극적인 정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용담댐은 전국 16개 다목적댐 중 5번째로 큰댐이다. 지난 2002년 댐 담수시 BOD 3.4ppm으로 수질이 좋지 않았지만, 20여년 간 꾸준한 관리와 정화활동으로 2020년 BOD 1.4ppm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전국적으로 소양강댐 등 15개 호수 중 수질이 매우 양호 한 상수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정길 회장은 "앞으로도 진안군민과 사회단체 모두 용담호가 살아야 진안군이 살고 전라북도가 산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남원경찰, 부패사체 운구 하산유공 민간인 감사장 수여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은 지난 5일 오후 자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에서 경찰서장, 전북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리산부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직원 김씨(45) 등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자리산부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직원 김씨등 2명은 뱀사를 회개해 해발 1,020m정상 부근 계곡에서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변사체가 발견되어 경찰과 고대로 6.4km구간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안전하게 운구, 경찰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이동민 서장은 "앞으로도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섬진강댐 노인복지관·정읍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약

섬진강댐 노인복지관(관장 서경순)은 지난 4일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곽준)과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가 일상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의 실태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자살 취약계층을 발굴, 연계해 자살률을 낮추고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정신질환 예방과 초기 발견을 위한 연계 협력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 지원 ▲정신 건강 고위험군 발굴·치료를 위한 연계 협력 등을 함께 한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협력사업의 첫 시작으로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섬진강댐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노인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곽준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노년층 자살률을 줄이는 데 좋은 발판이 됐으면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아산면, 외국인노동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

고창군 이산면행정복지센터가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2개 국어로 된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현수막을 걸고 홍보에 나섰다.

그간 이산면에선 농사활동 지원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만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 있다. 또 종량제봉투 사용이 의숙하지 않아 생활 쓰레기가 다풍 배출되어 악취,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이산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5곳에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2개국어로 제작한 현수막을 걸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제 백구면지사보협·복지기동대, 특화사업 실시

김제시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신형순, 장승환)와 복지기동대(대장 김윤종)는 지난 6일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나문희가정 고향에 행복꾸러미 보내드리기 사업을 추진했다.

나문희가정 고향에 행복꾸러미 보내드리기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향을 떠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나문희가정에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꼭 보내드리고 싶었던 선물과 생필품 및 후위 물품을 함께 지원하여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나문희가정에 정서적 지원을 해주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금번 특화사업은 이주여성뿐 아니라 한국 여성과 결혼한 베트남 남성도 포함되어 있어 행사를 추진하는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더욱 뜻깊고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경찰, 피서지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남원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지난 6일 방학기간을 맞아 남원교육지원청과 함께 휴가철 피서지인 뱀사골 주변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을 나눠주며 여름철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범죄, 성폭력 예방 및 비행청소년 계도를 실시하였고, 주변 관광지 및 업소에서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아동 판매 행위 금지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동민 남원경찰서장은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계도활동을 전개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음의 속도는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